

문화로 도시 되살린 日 가나자와·나오시마를 가다

공장 창고·마을 빈집 예술명소 탈바꿈 도시 브랜드 높이고 지역경제 살아나

글·사진 = 日가나자와 김경인 기자

지난 28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다이와마치에 있는 시민예술촌을 찾았다. 붉은 벽돌 건물과 나무 사이로 흐르는 인공수로에서는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즐기면서 평온한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 건물 중 한 공간에 들어서자 예술품은 죽처럼 넘쳐나듯 할머니 40여명이 포크댄스를 추고 있었고, 다른 공간에서는 구연동화, 나무작품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부모들로 붐볐다. 또 창고였던 공간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를 진지하게 연주하는 할아버지, 록을 연주하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원래 '다이와방직(주)'의 창고단지였다. 지난 1993년 가나자와에서 단지를 사들였고, 지난 1996년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으로 오픈했다. 멀티 공방, 드라마 공방, 뮤지 공방, 레스토랑 등 모



현대 미술가 오오다케 신로우가 낡은 섬마을 목욕탕에 예술을 입혀 만든 'I Love You'는 관광객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작품이며, 15만여명이 탕 안에 들어가 목욕을 하기도 했다.

버려진 공간 예술 입혀 주민들 문화욕구 충족

두 10개 시설에는 공연, 음악회,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 시설은 일본 국립 문화시설 중 최초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더 인상적인 것은 개인이나 단체 구분없이 6시간 기본 이용료가 1050엔(1만1600원)에 불과하다는 점과 모든 운영을 시민 주도하에 한다는 것이다.

시민예술촌은 자칫 버려질 뻔 했던 역사적 공간을 문화·예술의 장으로 바꿔 지자체 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건물을 용도폐기된 공간으로 보지 않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주민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역사적 장소에 문화·예술을 입혀 도심 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문화를 통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다른 강점은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맡겨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시민예술촌과 함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이 지난 30일 찾은 일본 시코쿠 가와와촌 나오시마다. 나오시마는 한때 매년 인구가 10%씩 줄어 버림받은 섬으로 불렸다. 하지만 베네세 그룹이 지난 1992년부터 나오시마에 베네세하우스, 지치미술관 등을 건립하면서 점차 외지인들의 방문이 늘었고, 지난 1997년부터 시작한 '이(家) 프로젝트'를 계기로 섬 주민(3200명)의 100배가 넘는 연간 방문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됐다.

'이(家)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옛 가옥을 나오시마 주민센터에 기증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그동안 모두 7개의 빈집, 치과병원, 오래된 신사 등을 안도 다다오, 제임스 터렐 등 세계적인 건축가와 작가들이 예술작품으로 바꿨다. 또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오다케 신로우가 디자인을 입힌 목욕탕 'I Love You'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작품이다.

나오시마도 초창기에는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난해한 현대미술을 고향의 나오시마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네세그룹과 나오시마 주민센터는 프로젝트마다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에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참여시켰다. 그 결과 노인들

은 외지인들로 인해 활기를 찾고, 일부는 외지인들을 안내하는 가이드를 자칭하고 있다. 나오시마 예술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는 후쿠다케재단(베네세재단) 겐지사가 네시로 부대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하지 않고, 주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더 소중하게 만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의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살려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일보에는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인천, 일본 가나자와,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자체 경제 활성화 특집을 연재한다. /kki@kwangju.co.kr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착수

국회 본회의 보고...민주 표결 찬반 여부 논의

국회는 2일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안 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를 착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정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안 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를 착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정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안 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를 착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정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안 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를 착수했다.

태풍 도라지 북상...6일 광주·전남 비

제17호 태풍 '도라지(TORAJI)'가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면서 제주도 해상과 남해안바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영향으로 6일에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남부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2일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제17호 태풍 도라지가 이날 새벽 3시께 대만 타이베이 북북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 일본까지 내려간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속 13km 속도로 북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가태풍센터는 이 태풍이 6일께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하면서 남부 지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이 기간 남해안 지역에 강풍이 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2일 오후 현재까지 도라지는 중심기압 998hPa(핵토파스칼), 최대풍속 18m/s로 소형 태풍에 속하며, 세력이 확장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도라지'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201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 1차모집] 원서접수: 9월4일(수)~13일(금)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광주대학교 특화 교육프로그램 & 수강생모집 안내. 프로그램 안내: 교육대상자는 만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입니다. *만 40세 이상 성인학습자를 우대합니다. *특화프로그램 구성은 일반 취·창업과정, 지역사회요구과정, 학습역량증진 과정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일반취·창업과정, 2. 지역사회요구과정, 3. 학습역량증진과정. 광주대학교 평생학습선도대학사업단 / 성인학습지원센터 http://ace.gwangju.ac.kr